

“한국의 불교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평

정 진 환

(동국대학교)

I

항용 토론이 어떤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에 따져 논의하는 것이라고 볼 때, 토론자인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은 유승무 교수의 발표논문에 대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고 따져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발표자의 발표논문을 정독해 나가면서 옳은 것과 미흡한 점을 가려내 보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미흡한 점을 찾아 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발표자의 발표 논문은 대체로 옳은 관점과 시각에 기초한 충분한 내용이어서 미흡한 점은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것)이 없다고 하였듯이 완벽한 논문 또한 드물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니라 하겠다. 이에 토론자인 본인은 결벽증 환자의 자세로 깨끗하고 깔끔한 논문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먼지(지엽적인 문제)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유승무 교수의 발표논문을 압축적으로 요약해 보겠다.

II.

유승무 교수는 “한국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 발표에서, 1) 가설 연역적(hypothetico deductive)논리 전개를 통해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일반론에서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구체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과학적 사고(scientific thinking)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리고 한국 불교의 사회적 기능과 그 한계를 사회화 기능의 측면, 의례를 통한 사회 통합적 측면,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복리의 측면에서 깊이 있고 폭넓게(deeply and widely)분석하고 있다. 3) 아울러 한국 불교의 사회적 역할 상의 제약조건을 첫째, 불교외적 요인으로 개인과 사회의 세속화 경향, 다종교사회로 인한 종교적 가치의 혼란, 서구화에 따른 전통적 종교인 불교의 상대적 약화, 우연론이나 운명론을 갈구하는 불교신도들의 기복적 종교성, 물질만능주의 및 개인주의 그리고 정부의 억불정책에 따른 불교문화와의 친화기회 박탈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불교 내적 요인으로, 자비의 실천보다 산사의 선승을 택해온 선불교적 전통, 신도 및 출가수행자에 대한 교육의 무관심, 종단내부의 분규 및 불미스런 사태 등을 지적하고 있다. 4) 끝으로 향후 한국 불교가 소기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교 종단의 역할과 기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승무 교수의 발표는 한국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과거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지혜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배롭고 가치롭다고 하겠다.

III.

유승무 교수는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주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이 핵심적 기능이 될 수 있지만 불교는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제도인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과제가 되겠지만 불교가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각각에 미치는 기능을 분석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불교의 정치적 기능, 불교의 경제적 기능, 불교의 문화적 기능, 불교의 가족적 유대 기능, 불교의 교육적(사회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아울러 불교의 사회 교육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적 기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상호연결적 관계에 있으나 이들 각각을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시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개인적으로는 실존적 의미를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시켜줌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문화유형을 보존하고 정서적 긴장을 관리토록 하며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고, 신앙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운데서 희망을 심어주고 정신함양을 시켜주는가 하면 협동심을 불러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능케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한 제약조건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이다.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불교의 사회적 기능 내지 사회 교육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왜냐하면 계획은 발전의 모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계획 및 설계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지엽적인 문제로서 발표자가 의구심을 갖는 점 두어가지만 언급해 보겠다. 발표논문 18페이지에서 종교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의 가치체계와 신념체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발표자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본 토론자는 특정 종교의 가치체계 및 신념체계가 사회화되어 있으면 이미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완수되었다고 보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여전한지 묻고 싶다. 그리고 발표자는 의례를 통해서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란 느낌이다. 물론 의례를 통해서 신도간의 통합 및 종단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촉진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거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가정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IV.

요컨대, 유승무 교수의 발표는 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개론적이고 원리적인 차원을 짚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롭고 보배롭다고 하겠다. 그리고 발표자가 지적한 문제 및 제약요건이 해결되고 발표자가 제시한 불교 종단의 노력이 펼쳐진다면 불교의 사회적 기능은 활기차게 전개되리라 믿으면서 토론을 마치는 바이다.